

■ 괴운(槐雲) 칼럼



## 류성룡의 리더십과 인생 10계명

권 해 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복야공파 36세)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1542-1607)은 우리의 민족 사상 가장 가열했던 임진왜란 때 영의정과 도체찰사(都體察使) 등 중책을 맡아 몸소 발란(撥亂)을 극복한 정치가이며 대 학자이다. 그는 임진왜란 발발 한 해 전에 형조 정랑 권을(權維)을 4계급 승진시켜 의주 목사에 천거하고, 정을 현감 이순신을 7계급 승진시켜 전라 좌 수사에 천거하였다. 그리고 왜적이 오는 길목인 동래 부사에 송상헌을 보내는 등 임진왜란 9 영웅을 발탁한 유능한 인물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극복에 공이 가장 큰 사람이지만 당시 3차례 영의정을 파직당하고 백의종군하였다. 그리고 임란이 끝날 무렵 파직당해 향리 하회(河回)로 귀향하여 전란 중에 겪었던 성패의 자취를 반성 고찰하여 징비록(懲毖錄)을 저술하였다. 오늘은 권대봉 인천제능대 총장과 신광철 작가의 공저로 도서출판 느티나무가 있는 풍경에서 발간한 <서애 류성룡의 인생 10계명> 책에서 배우는 10가지 교훈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인생 1계명: 외부의 적과는 싸우되 내부의 적과는 싸우지 마라. 당시 정적이었던 이산해(李山海)와 정철(鄭澈)과 조정안에서 끊임없이 만나고 국사를 논의해야만 했다. 기축옥사로 동인 1천여 명을 죽이고 귀양보낸 정철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산해를 반대해서 피의 보복을 멈추라고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이후 동인은 이산해의 복인과 류성룡의 남인으로 갈라졌다. (2) 2계명: 전쟁을 대비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지 마라. 평화는 강자의 여유다. 약자는 평화를 누리 자격이 없다. 평화를 누리려면 먼저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3) 3계명: 결단의 순간에 망설이지 마라. 선조가 나라를 버리고 명나라로 도주하려 하자 막아선 사람이 류성룡이다. 왜적과 뒷거래를 막으려고 명나라 황제의 깃발을 막아쌌다가 사형당할 뻔한 적도 있다. 류성룡에게는 명나라 황제의 권위보다 절대군주의 안위보다 국가와 백성의 안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4) 4계명: 옳은 일을 했다고 당장 인정받기를 바라지 마라. 목숨을 걸고 전장에서 동분서주하며 나라를 위해서 된 결과가 파직이었다. 전쟁이 끝나자 조용히 고향 안동으로 내려갔다. 그래도 하늘이 알았고, 백

성이 알았고 역사가 알아주었다. (5) 5계명: 현장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정책을 만들지 마라. 류성룡은 탁상 위에서 정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임진왜란 7년 중 4도 체찰사로 현장을 다니면서 진두지휘하였다. 명나라 군대와 함께 평양성을 탈환할 때 좁은길을 모아 새끼를 꼬아 엮어 임진강 양쪽에 부교를 만들어 말과 대포를 건너게 했다. 미국 역사학자 힐버트는 거북선, 금속활자, 한글, 칠판 부교를 한국의 4대 발명품으로 꼽았다.

(6) 6계명: 고정관념을 깨지 않고 세상에 인재가 없다고 말하지 마라. 기축옥사로 조정 대신 1천여 명이 사라져 인물이 없다고 한탄할 때 우의정 겸 이조판서였던 류성룡이 권을, 이순신, 송상헌 같은 인물을 발탁하여 최고의 영웅으로 만들었다. (7) 7계명: 능력을 보지 않고 신분과 학력을 따지지 마라. 평민도 공을 세우면 군관이 되도록 하였고, 노비도 전공을 세우면 면천하였다. 훈연도감을 만들어 상비군을 창설하였고, 양반 노비 구분 없이 능력자를 합격시켰다. (8) 8계명: 경계를 넘어 공부하지 않고 할 수 없다고 하지 마라. 과거시험에만 몰두하지 않고 폭넓은 학문을 탐구했다. (9) 9계명: 마음을 통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라. 때때로 포악하고 변덕스러운 선조의 마음을 잡아 국정을 바르게 이끌었다. 전쟁 중 도망친 사람들도 국가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고 지방 아전들도 자발적으로 봉사하도록 만들었다. (10) 인생 10계명: 반성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 인생만 힘들다고 하지 마라. 그는 평생을 국가에 헌신했고, 임란 극복에 앞장섰지만 파직당해 고향으로 가서 나라의 미래를 대비한다는 징비록을 썼다.

허균은 류성룡을 한 고조의 책사인 장량(張良)과 같은 “조선의 장자방(張子房)”이라 칭송하였다. 오늘날과 같이 국제적 분쟁 속에 국내적으로도 여야 정권이 분열된 혼란의 정국에서, 미래 대비를 위해 국난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국익을 위해 상대를 포용할 역량과 끈으로 유연하고 추진력이 강한 서애 류성룡 같은 리더십이 절실하며, 그가 저술한 징비록은 전 국민의 필독서가 되길 바란다.

## 남강공 추향제 봉행

남강공(南崗公, 권상權, 21世) 추향제가 10월 18일 11시 충북 청주시 옥산면 환희3길 38-20에 위치한 청주 백목서원(白鹿書院)에서 권동욱 남강공 종회 회장을 비롯하여 권영식 도사공 종회 회장, 대전 진잠향교의 권송웅 전교 등 많은 후손과 지방 유림들이 참석해 가운대 봉행되었다.

제향은 초헌관 홍성모 청주향교 전교, 아헌관 이충의 표충사 고문, 종헌관 조상희 유림, 집례 김한덕 청주향교 감사, 축박상룡 청주향교 장의 등으로 분정하였다.

백목서원은 남강(南崗)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1710년(숙종 36년) 후손 및 지역 유림들이 창건하고,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철폐되었다가 해방 후 후손과 유림들의 노력으로 복원하였으며 1965년도에 보수하였다. 백목서원은 2015년 4월 17일 향도유적 제96호로 지정되었다. 남강공의 손자인 도사공(都事公, 필종必宗)이 청주 옥산면으로 입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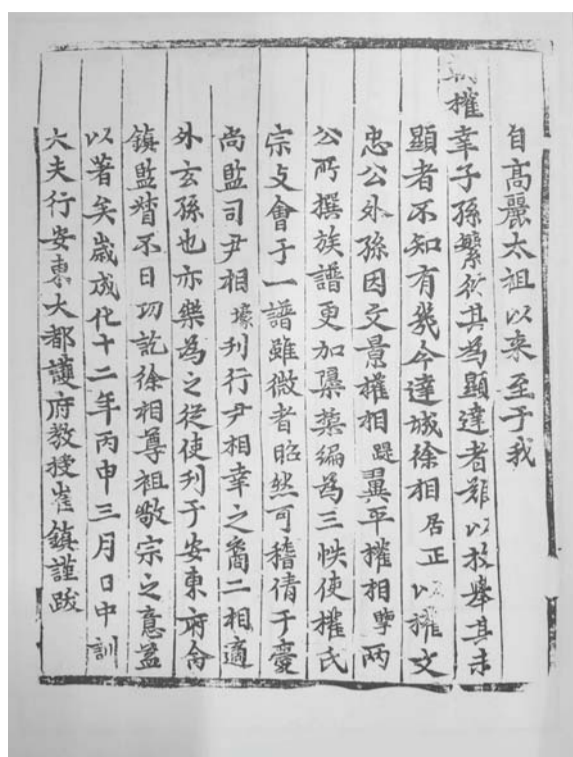


(入郷) 후 후손들의 노력과 지방유림들이 협조로 창건한 후 300년 넘게 보존 관리해오고 있다.

남강 선생은 후손들에게 심중대덕경세언인(心中大德經世彦人) 8자로 유훈(遺訓)을 내렸고 후손들 항렬자(行列字)로 쓰도록 하였다. 권규택 남강공 15세 후손(시조 후 35세)

## 성화보 발문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최현욱(경주최씨 화숙공파 33세손/서강대 박사과정)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서부터 온 존재인가?”라는 질문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했을법한 질문이다. 질문에 답하는 방법은 각자 나름의 방식이 있겠지만 필자는 ‘혈연적 뿌리’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영조 시대부터 지금까지 발행된 경주최씨 족보, 조선왕조실록 등 서적과 할머니 집안의 족보에서 조상님들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여말선초 시기 우리 집안과 안동권씨 집안 사이에 몇 차례의 혼인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안동권씨 성화보를 열람하였다.

서문을 넘긴 후 한 쪽 분량의 짧은 글이 있었다. 한문도 잘 모르고 서문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려던 찰나, 익숙한 한자가 눈에 들어왔다. 바로 중훈대부(中訓大夫) 행안동대도호부(行安東大都護府) 교수(敎授) 최진(崔鎭) 근발(謹跋)이라는 한자였다. 서문에 비해 적은 분량인 발문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 필자의 눈에는 선조의 존함이 한눈에 들어왔다. 더 나아가 성화보 발문을 작성한 최진이라는 인물이 정말 필자의 선조가 맞는지, 동명인인지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최진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자면 자료의 부족으로 생몰년은 알 수 없으나 2022년 간행된 경주최씨 족보인 임인보에 따르면 세조(世祖) 병자(丙子)년 문과(文科)에 급제하였고, 관직은 감찰(監察)이며, 함창김씨 김경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최진에 대한 기록의 전부이며, 필자가 추가적으로 찾은 자료를 토대로 네 가지 근거를 들어 성화보 발문을 작성한 분이 필자의 선

조임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첫째, 1400년대 중반 최진이 라는 인물은 필자의 선조가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조선왕조실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수많은 역사 사료 관련 홈페이지에서 최진 혹은 최鎭을 검색해보았다. 비슷한 시기 한글 동명인인은 있었지만 본관이 달랐고, 무엇보다 한 자가 달랐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성화보가 발간될 당시 최진은 필자의 선조인 경주최씨 최진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둘째, 지역적 연관성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최진의 출생지나 거주지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최진의 아버지인 최사온(崔思溫)의 장인이 안동시 일직면은 본관으로 하는 일직손씨 손순(孫順)이라는 사실과 사마방목을 토대로 최진의 동생인 최정(崔釘)이 세종(世宗) 정묘(丁卯)년 문과에 급제하였을 때 거주지가 함창(咸昌)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마지막으로 신달정 묘갈과 평산신씨 대동보에 근거하여 최진의 장언어른이 함창김씨 김경노(金貞老)라는 것은 영남지방에 지역적 기반을 둔 인물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세 번째 근거는 안동권씨와의 혈연관계이다. 최진의 8촌 이내 친척 중, 안동권씨와의 혈연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최진의 작은 할아버지는 최주(崔宙)이다. 최주는 권근(權近)의 사위이자 고려 집현전 대제학, 조선 남양부사를 역임하였다. 또한 최주의 딸이자 최진의 5촌 당고모는 권충(權淸)의 며느리이자 권을(權維)의 부인이다. 이렇듯 가까운 친척들과 안동권씨의 혼인은 최진도 그들과 광장히 가까운 관계였으며, 직·간접적인 교류가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 넷째, 관직 재임기간을 토대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최진은 세조(世祖) 2년(1456) 문과에 급제하였다. 경주최씨 족보, 신달정 묘갈, 국조문과방목, 조선왕조실록 등 옛 문헌을 통해 최진은 승문원 교리, 전의 현감, 사헌부 감찰을 역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관직 재임기간이 정확히 기록된 자료는 조선왕조실록뿐이다.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세조실록 세조 12년(1466) 11월 10일 무인 3번째 기사에서는 전의 현감(全義縣監), 성종실록 성종 14년(1483) 5월 7일 무술 2번째 기사에서는 감찰(監察) 벼슬에 재임 중이었다. 따라서 세조 12년(1466) 중 6품 전의 현감을 지냈고, 성종 14년(1483)에는 정 6품 감찰을 역임했다는 기록은 1476년 성화보가 만들어질 무렵, 발문



을 작성한 중 6품 교수(敎授) 최진이 필자의 선조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성화보에 기록된 최진이라는 인물의 한자 이름과 관직명, 품계만을 가지고 필자의 선조임을 밝히기 위한 여정은 자료의 부족으로 여기서 멈춘다. 하지만 필자의 위에 서술한 네 가지 근거를 토대로 성화보 발문의 주인공이 필자의 선조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물론 2024년과 성화보가 발간된 시기는 약 550년의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100%의 정답은 알 수 없다. 또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필자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갔거나 확정판향이 작용했다는 사실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최진(崔鎭)이라는 한자 이름을 사용하는 인물이 1400년대에는 필자의 선조가 유일하였다는 점, 영남에 기반을 둔 인물일 수 있다는 점, 안동권씨와 혈연관계로 얽혀있었다는 점, 관직의 재임기간을 근거로 보았을 때 성화보의 발문을 작성한 최진이라는 인물은 필자의 조상님이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최진이라는 인물이 필자의 선조임을 단언하기 어려우나 만약 가능성이 높다면, 안동권씨 문중이 있었기에 약 550년 전의 옛 조상님을 글로써 만나고 교감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성화보를 큰 훼손없이 보존해주신 안동권씨 문중이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

## 임원회비 납부 안내

임원 여러분!

임원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회비는 안동권문의 발전과 100만 족친의 화합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입니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임원 : 상임위원, 부회장, 이사, 총무위원

◆ 대총회 사무처 :

▶ 전화번호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임원회비 입금 계좌

▶ 국민은행 : 033237-04-006941 (예금주: 안동권씨 대총회)

▶ 농협 : 301-0235-6546-41 (예금주: 안동권씨 대총회)

안동권씨 대총회

## 서울지역종친회 가을 단풍놀이 안내

회원 여러분!

소요산 단풍이 아주 좋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단풍이 울긋불긋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한번 보러 가시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4년 11월 10일, 일요일 정오 12시 ◆ 연락처  
♣ 만남의 장소 : 1호선 소요산역 대합실 회 장: 권영복 010-2456-6865  
사무국장: 권순휘 010-3797-1874  
총 무: 권경택 010-3796-4047

2024년 11월 1일

안동권씨 서울지역종친회 회장 권영복

## 서울산악회 제343차 정기산행 안내

회원 여러분!

서울산악회 제343차 정기산행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4년 11월 17일(일) 10시(시간엄수)  
♣ 집합장소 :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1번 출구  
♣ 산행지 : 하늘공원 및 둘레길  
♣ 준비물 : 도시락, 간식, 개인 필요장비 지참  
회 장 권정찬 : 010-5392-6222  
등반대장 권오윤 : 010-9027-6179  
총 무 권혁구 : 010-2240-4242

2024년 11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정찬